

# 사랑이 넘치는 의사, 국회로 가다

신자 국회의원 안명옥(안명옥의원)

글 · 김성태(자주신문 기자)

“안명옥의 영문 첫 자는 Amo입니다. Amo는 스페인어로 사랑(love)이고, 라틴어로 I love의 의미이니 ‘너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하며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사랑이 가득한 의사, 사랑을 나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또한 아호는 한자로 아모(雅慕) 즉, 우아한 그리움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첫인사를 사랑으로 이야기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원내 부대표)은 의료·보건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이며 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대한골다공증학회 홍보이사, 한국모자보건학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국민지식향상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 이사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위원, 여성부·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의 정책자문 및 연구참여 등 전공분야에서 여성·청소년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깊이 관여해 왔다. 안 의원은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보수성이 강한 남성 중심의 의학계에서 최초로 요직을 맡은 여의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 정계에 진출하게 된 계기, 배경은 무엇인지?

예방의학·보건학을 전공한 임상 의사로서 볼 때, 의사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잘 만들어진 국가 정책이나 정치는 온 국민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

I love  
Amo

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다른 분야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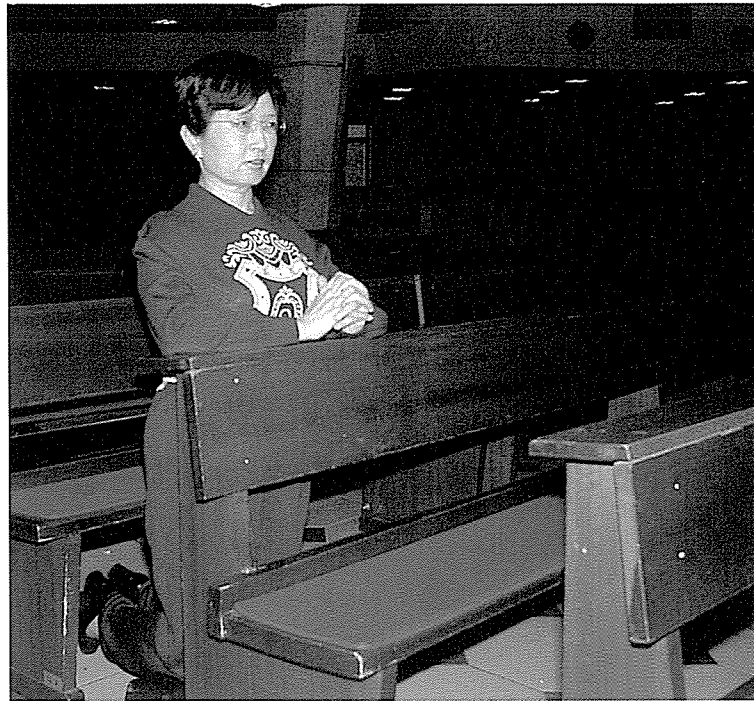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이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의 상황에서 의료의 중심에 있는 전문가인 의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개입하고, 입법 등을 다룬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민의 보건복지 분야에 기틀을 만들어 맑고 밝은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의정활동시 특별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분야는?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간과했던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때라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국회에 진출한 만큼, 국민 건강을 진작시키려는 보건·의료 환경의 모든 분야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연구하는 입법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다루어온 전문분야를 근간으로 하여 의료분야나 보건복지 정책뿐 아니라 여성정책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없거나 앞으로 꼭 있어야 할 방향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안 의원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으로 완벽한 처방을 내려야 하듯이 정치도 섬세하게 무결점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부인과는 여성의 몸과 마음, 영혼의 건강을 돌보는 분야로, 여성건강을 포함한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있어, 제가 전공한 모성태아학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학 자체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분야로 사회학, 인류학, 경영학, 정치학, 통계학, 역학, 법학등을 망라하고 있는데다 개인적으로 인문학적인 분야도 접근해 봤으므로 양 분야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



다면 법학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속도가 빠른 고령화는 노동 및 국방인력 부족과 고령자 부양문제 등 국가의 존립을 훼손할 수 있는 '최대 복병'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첫 의안으로 17대 국회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한 안명옥 의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말한다.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특위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가톨릭 신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름에서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자 합니다.

미국 유학시절 시간이 너무도 모자란 상황에서 1년 코스의 영신수련의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정성을 드린 한 시간을 오히려 실 수 있는 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루를 25시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여유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묵주와 함께, 한손에는 인간과의 결혼반지를, 다른 한손에는 하느님과의 결혼반지를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들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